



##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 교회

-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김영란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감사의 신앙 (눅 17: 11-19)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http://hkb.church)

## “축복된 만남” (요한복음 17:9-11 절)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축복할 새로운 만남을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소망 가운데 축복된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의 만남, 현재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 교회 성도, 친구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만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 줄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누군가 10 번 잘해주다가 한번 잘못해 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그렇기에 축복된 만남을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우연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 속에, 인내함 속에,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축복의 만남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약 두 세시간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상황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섭섭한 마음과 실망한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우연히 만난 것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만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인 복음 전파를 하실 것을 믿었기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명자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잘 해주겠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실망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도로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 가리라”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행하신 용서와 화목과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소식

1.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 전도회 - 예배 후 각 전도회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3. 부장, 운영회 - 8/13 오후 1 시에 부장, 운영회 모임이 있습니다.
4. 헌장개정 - 헌장 개정을 시작합니다. 헌장개정 위원 선임과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 중보기도 - 교회에 아프신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06	8/13	8/20	8/27
대표기도	김영란	유경애	손다니엘	유경주
헌화성도	조정욱	심영민	성미숙	조분영
봉사당번	소망구역	사랑구역	사랑구역	각전도회

## 행사 및 모임

9 월	창립기념부흥회	9 월 8-10 일 (금-주일)
	47 주년창립기념예배	9 월 10 일(주일)

##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870.00	

##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정병철	510-415-4156	정주환(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Malaysia)
소망구역	유경주	510-634-9374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b>TEE</b> 성경공부-12 주	12 주

### 다시는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

지난 한주 휴가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가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기대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늘 목회자이기에 예배를 위해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주일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서야 하지만 휴가에는 참석하고 싶었던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예배의 진행과 순서, 설교 스타일,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숙소에서 5 분 정도 거리에 갈보리 채플 교회 (Calvary Chapel) 라는 미국 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약 60 년전 남가주 지역에서 척 스미스(Chuck Smith) 라는 목사가 개척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1,000 여 자매교회들이 있는 ‘교단이 아닌 교단’처럼 발전하고 부흥했던 교회였기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갈보리 교회를 가면서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자의 시선으로 참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의 느낌과 경험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나왔을 때 “다시는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저희 가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의 건물은 오래된 성전이었지만 안과 밖을 깨끗, 단정,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잘 꾸며놓아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도, 음향, 조명, 설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배 10 분 전에 도착했을 때 교회 로비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안내위원이었던 단 한분만이 간단히 “Hi.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며 “저 옆방에 커피가 있는데 원하면 가서 마셔도 된다” 라만 했지 저희 가정이 온 것에 대해 반가워하거나, 환영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주변에 서로들 환한 미소를 띠며 대화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희에게 다가 온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 성도님께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헌금함을 가리키며 “저기에 넣으세요” 정확한 (?) 답만 주었지 인사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와 인사하는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 자리에 몇 분 서 있다가 본당을 나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찾아와 인사하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어느 집사님도, 어느 성도도 ...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던 성도들은 많았는데 ...그들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포옹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뒤로 하고 파킹장을 나가면서 “다시는 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 라는 웅알거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던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새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지 함께 돌아보고 “다시 이 교회에 오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환영과 맞이함이 있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